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협상 진행 중 쌀 관세 날벼락?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단, 인도 방문해 회담 진행할 예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이 12월 10~11일 인도를 방문해 관세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8월 27일)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은 최근 다양한 지표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인도 대(對)미 수출은 관세가 본격 반영된 9월 YoY -12% 감소했고, 10월에도 -8.6%의 역성장이 이어졌다. 또한, 10월 산업생산(IIP)은 YoY +0.4%로 14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1월 제조업 PMI 역시 전월 59.2에서 56.6으로 하락하며 확장세가 둔화됐다. 물론 10월 IIP는 디왈리 등 축제 시즌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11월 PMI는 축제 종료 후 계절적 수요 둔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관세 이후 대외 수요 약화가 생산, 신규주문, 기업 심리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단기 잡음 있으나 큰 흐름에 영향 미미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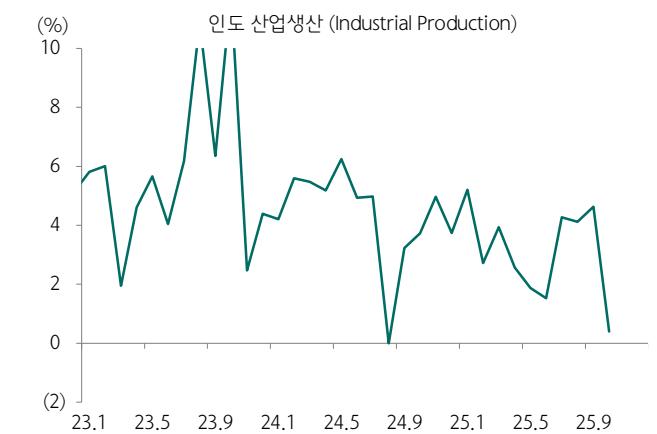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인도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가 재차 확대되며 수급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인도 입장에서도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성장·환율·수급 등 안정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양측 모두 이전보다 더 명확한 진전을 모색할 유인이 커진 국면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협상 태도 역시 과거 대비 한층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원유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미국산 LPG 장기 도입과 군사장비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인도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제안들은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농업 부문에서도 개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협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인도산 쌀 덤플링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새로운 단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인도 전체 쌀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해 설령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해당 발언은 미국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120억 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농업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철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국 관세 협상의 방향을 바꿀 만한 구조적 변수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협상 흐름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국 간 회담 진전 여부에 대해 지속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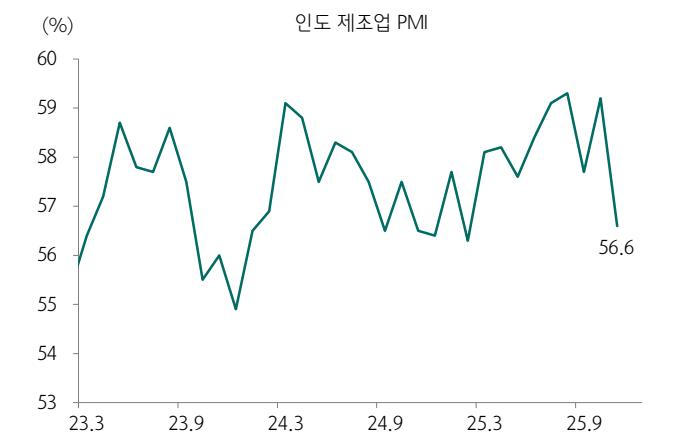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차트 1. 인도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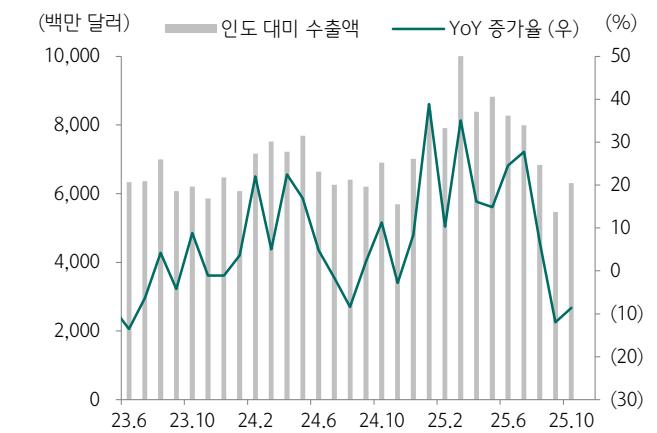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인도 제조업 PMI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3. 인도 대미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4.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